

아들러의 ‘삶의 틀’과 원동연의 ‘수용성 틀’

박남기(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2015년 우리나라 심리학계에 아들러 바람이 불었다. 아들러의 심리학이 가르침에 주는 시사점을 찾다보니 ‘오차원 전면학습법’을 개발하여 20여년의 세월동안 발전시켜 ‘수용성교육’으로 정착시켜온 원동연(공학박사)의 주장과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둘의 교육론을 바탕으로 가르침의 본질을 헤아려보고자 한다.

1. 아들러의 삶의 틀

아들러는 삶의 틀(life style)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한다. 첫째는 자기개념 -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 둘째는 세계상 -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곳인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 셋째는 자기이상 -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어떤 모습이 그것이다. 아들러의 ‘교육을 말하다’에서 역자는 아들러가 부모와 교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아들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부모와 교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다.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회적 감정을 키우도록 이끌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자신만 아니라 남도 의식하며 동시에 어떤 문제든 똑바로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는 아이는 건전하게 성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다. 아들러는 “행동이 바르지 않거나 정상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틀림없이 낙담한 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이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이끄는 최고의 방법은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하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Adler 저 김세영 역, 2015: 6).

아들러는 삶의 틀은 어려서 결정된다고 한다. 그만큼 어린 시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청소년기에는 그 틀을 전혀 바꿀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학생 교육과 삶의 틀의 관계는 곡식 기르기와 논밭 지력(地力)의 관계와 같다. 곡식을 심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밭의 지력을 튼실하게 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골라 심고 최고의 농법으로 기른다고 하더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농부들은 곡식을 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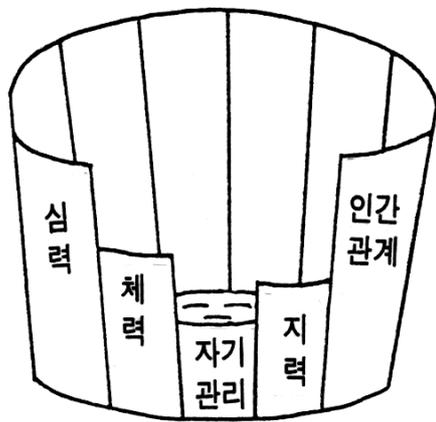
전에 논밭에 퇴비를 주고, 쟁기질을 하는 등의 노력을 먼저 기울인다.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도 좋은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삶의 틀이 깨져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급담임제는 아틀러 교육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바람직한 제도이다. 한 선생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학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삶의 틀이 취약한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이 쉽다. 그리고 1년 내내 같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성과 의지도 커진다. 이는 1년간 한 경작지를 혼자서 사용하는 농부의 마음 자세와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 교수나 중등학교 교과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만 만날 뿐이어서 삶의 틀이 깨진 학생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령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담임과 달리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방치하고 싶은 생각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삶의 틀이 깨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누가 애착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기 전에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기노시타 하루히로(2004: 210)는 ‘강요하는 초보 감동시키는 프로’에서 “‘어차피 이 학생은 내 아이가 아니다. 어떻게 되든(물론 잘 되는 편이 좋지만) 이 학생의 인생이다’라는 냉철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멋진 ‘방식’을 실시해도 결국 그 ‘방식’은 멋지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냉철한 상태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틀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의 성장과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과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떤 교수법을 동원하더라도 별로 효과를 낼 수 없다. 가르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업 중에서 혹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생은 없는지를 살피고, 그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그 학생이 가진 삶의 틀을 바로잡아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단순한 교수법 변화만 가지고서는 그러한 학생을 배움의 길로 이끌 수는 없다.

2. 원동연의 ‘수용성 틀’

원동연(2000)이 창안한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은 아들러의 심리학과 맥을 같이한다. 아들러가 삶의 틀을 강조하는 것처럼 원동연 박사는 5 가지 수용성 요소(틀)를 강조한다. 그가 밝힌 인간의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5 가지 수용성 요소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능력이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의 본질적 요소들을 골고루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수용성 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카이스트, 2015: 210-211). 수용성 틀이란 학습과 성장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요소)을 의미한다. 혀의 미각 수용체가 망가지면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수용성 요소가 망가지면 학습과 성장이 어려워진다. 그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¹⁾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수용성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학생의 학습 성과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자료: 원동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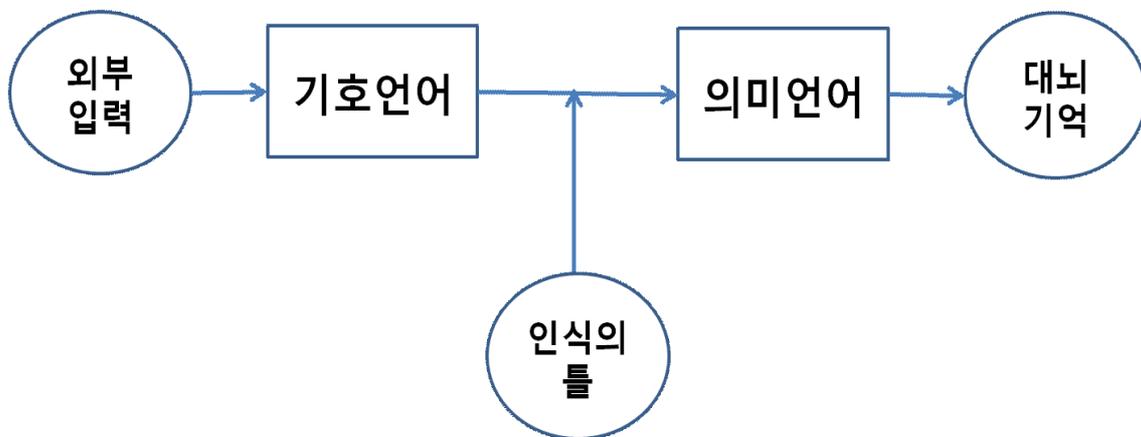
[그림 1] 수용성 다섯 가지 틀과 학습 성과간의 관계

각각의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성의 틀(지력)이란 전달되는 지식을 재해석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의미한다. 지성의 틀이 왜곡되어 있으면 전달되는 지식에 바르게 반응할 수 없으며 창조적 지성을 발휘할 수도 없다. 원동연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학교를 자주 찾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같은 선생님께서도 같은 강의를 듣지만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을 알아차려 더 잘 기억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나 선생님의 농담은 잘 기억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

한 차이는 그들이 가진 지성의 틀 때문에 발생한다.

학습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여 자신의 지식체계에 연결하여 기억하고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매순간 우리의 오감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1천 1백만 개에 달한다.²⁾ 그 정보 중에서 교수학습과정과 가장 관계가 높은 것은 시각과 청각을 통한 기호언어(syntactic language)정보이다. 학습자는 들어오는 기호언어 정보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데, 재해석한 내용은 의미언어(semantic language)로 재구성되어 대뇌에 기억된다. 기호언어를 의미언어로 재해석하는 과정은 사물 인식방식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이광형 제공자료 ‘인식의 틀과 인성교육’).



자료: 이광형 제공

[그림 2] 외부입력, 인식의 틀, 기억 사이의 관계

인식의 틀은 재해석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초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여자와 남자는 인식 틀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드라마를 함께 보더라도 기억하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자는 주로 줄거리를 인식하는 반면 여자는 의도하지 않아도 등장인물의 옷과 장신구, 배경이 된 공간의 각종 가구와 심지어 그릇의 색깔, 모양, 종류까지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앞의 예에서 본 것처럼 수업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배웠어도 기

역 내용이 다른 것은 인식 틀의 차이가 인식 초점, 즉 관심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성의 틀은 이하의 다른 틀과도 서로 연결 되어 있으므로 다른 틀과의 동시적인 회복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원동연은 일반 교수법 주창자나 심리학자들과 달리 수용성 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직접 만들어 오랜 기간 실험을 하면서 발전시켜오고 있다. 그가 주창하고 있는 수용성 교육은 단순한 교수법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용성 틀을 바꾸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德勒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지성의 틀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삶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아德勒(Adler 저 김세영 역, 2015:30)는 “목표는 절대적인 힘을 지닌다. 목표는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고 행동의 모든 측면에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면서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이들에게 삶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edutopia.org). 교과를 가르치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이 꿈을 찾아가도록 돕는 스승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 그 것이 바로 인간교사가 해야 할 핵심 역할임을 여기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심적 틀(심력)이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이에 대응하는 마음의 힘이다. 만일 마음으로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진다.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긍정적인 심근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아德勒(아德勒 저 김세영 역, 2015: 60)는 “아이가 야망을 품도록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용기를 갖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아이가 실패 앞에서 낙담하지 말고 실패를 하나의 새로운 문제로 여기며 해결해 나가도록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심적 틀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한 과목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함을 아德勒는 주장한다.

셋째, 몸의 틀(체력)이란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원동연에 따르면 뒤틀린 몸이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지적능력에도 악

영향을 준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체력이 부족한 사람은 교육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른 인성이 학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몸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게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알려져 있다(Riply, 2013). 원동연도 학교를 방문하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시간 과다로 인해 잠이 부족하고 너무나 피곤해서 그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설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해결책이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끝 종이 울리자 자고 있던 학생들 중 상당수는 모두 깨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신나게 떠들었다. 그런데 시작 종이 울리고 수업이 시작되자 그 학생들이 다시 잠을 잤다. 수업 중에 잠을 자던 학생들 중에는 심지어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잠시 깨어 웃다가 공부를 시작하면 다시 자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는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한 결과 뇌파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 수업 중에 늘 자는 학생 즉, 몸의 틀에 문제가 생긴 학생은 지성의 틀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몸의 틀 회복뿐만 아니라 지성의 틀 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해 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때문이다.

넷째, 자기관리능력이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자신을 통제하여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고, 개인이 가진 시간, 물질, 적성 등의 에너지를 융합해서 바르게 분포시킬 수 있는 융합적 역량을 의미한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도 자기관리능력이 결여되면 교육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인간관계 회복 능력(인간관계능력)이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과 불신 그리고 미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학생들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인간관계 회복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제대로 교육 받기 어렵다.

원동연은 대안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 문제가 많은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이 좋은 말을 듣지 못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

필이면 좋은 말을 자신들이 가장 미워하는 부모나 선생님께서로부터 들어 망가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이 하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문제 학생들은 갈등과 미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원동연은 이들의 인간관계능력이 회복되도록 하는 수용성틀 회복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원동연의 ‘인간관계능력’은 아들러의 ‘사회적 감정(공동체적 감정)’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감정은 정상적인 성격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 심리학은 이 사회적 감정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기술을 개발해왔다(Adler 저 김세영 역, 2015: 21).

학급담임(지도교수)이 되었던 교과목만을 가르치는 교사(교수)가 되었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르침의 과정에서 교과내용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5가지 수용성의 틀도 함께 갖추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교수법에 택해 수업을 하든 그 교수법과 이 글에서 소개한 삶의 틀 및 수용성의 틀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기노시타 하루히로(안소현 역)(2004). 강요하는 초보 감동시키는 프로. 서울: 나무한 그루
-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2015).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 서울: 이콘.
- 원동연(2000). 5차원 전면교육학습법. 서울: 김영사.
- Adler 저(김문성 역)(2015). 아들러 심리학 활용. 서울: 스타북스.
- Adler, A.(1930). Kindererziehung. 김세영(역).(2015). 알프레드 아들러, 교육을 말하다. 서울: 부글북스.
- Ripley, A.(2013). The smartest kids in the world. New York: Somon & Schuster.
- Wilson, T.(2004). Strangers to ourselves: discovering the adaptive unconscious. 진성록 역(2008). 나는 내가 낯설다. 서울: 부글북스

1) 최소량의 법칙은 ‘필수 영양소 중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법칙으로 독일 식물학자 유스투스 리비히(Justus Liebig, 1803-1873)가 1840년에 주창하였다.

2) 과학자들은 각각의 감각기관이 가진 수용기세포(receptor cell)와 이 세포에서 뇌로 가는 신경의 수를 헤아려 이런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눈이 매초 우리의 뇌에 보내는 신호만을 따져도 1천만 개가 넘는다(Wilson, 2004: 51).